“첫 왕 역할 고민 많았죠”

tvN 월화극 ‘백일의 낭군님’ 조한철

영화 ‘신과함께’까지
쌍끌이 흥행 이끌어
“다양한 캐릭터 연기
새로운 모습 기대하세요”

“불안한 왕 역할 표현하는 것 고민 많았죠.”

지난 30일 종영한 tvN 월화극 ‘백일의 낭군님’의 왕은 공신들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무기력한 왕이었다. 아들에 대한 애정이 있지만 그를 지켜주지 못해 때론 답답했지만 연민도 불러일으켰다.

이런 왕을 연기한 배우 조한철(45)은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를 31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만났다.

“극 중 왕은 김차언에 의해서 세워지고 언제라도 내쳐질 수 있는 왕이었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관건이었죠. 불안이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지키려고 하는 욕구를 많이 드러내려고 했죠. 강박과 집착을 드러낼수록 불안이 많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극이 일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 송주현과 궁을 오가면서 진행돼 궁의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도 고민이었다고 한다.

“송주현과 궁이 색깔이 너무 달랐죠. 송주현은 현대적인데 궁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는 정통 사극과 다를 게 없었어요. 제가 정통 사극 스타일로 연기하면 색깔이 맞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더 힘을 빼야 하나?’ 싶기도 했는데 그러면 극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말자’ 싶었죠.”

그는 ‘백일의 낭군님’이 tvN 월화극의 새 기록을 쓰며 높은 성적을 거둔 데 대해 “두 가지 다른 내용이 진행됐기 때문에 정통 사극과 퓨전 사극의 두 가지 매력이 통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한철은 극 중에서 아들로 출연했던 도경수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아이돌 가수들이 주연을 많이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서 그런지 책임감 같은 게 배어있더라고요. 가수 출신이니까 배우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친구죠.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죠. (웃음)”

조한철은 1998년 연극 ‘원룸’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 2012년 ‘대풍수’를 통해 드라마로 영역을 넓혔다. 이후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016), ‘내일 그대와’(2017), 영화 ‘럭키’(2016), ‘판도라’(2016) 등에 출연했다.

올해는 ‘백일의 낭군님’ 뿐만 아니라 영화 ‘신과함께-인과 연’이 흥행하면서 믿고 보는 배우로 떠올랐다. 그는 KBS 2TV 새 수목극 ‘죽어도 좋아’에도 출연을 앞두고 있다.

“중학교 때 성당 선생님을 따라 대학로에서 처음 연극을 본 순간 제가 갈 길을 정했죠. 그때부터 주말마다 대학로에서 영화를 봤어요. 제가 하는 ‘리어왕’을 본 관객이 집에 가는 길에 아버지께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 정도 되려면 연기를 정말 잘해야겠죠.”

조한철은 “이번에 왕 역할까지 다른 배우들보다 다양한 캐릭터를 한 것 같다. 이제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 약간 부담도 되지만 기대가 된다”며 웃었다. /연합뉴스

전남CBS ‘홍지민 뮤지컬 & 오페라 스타’

창립 15주년 기념공연
내일 여수 예울마루 대극장

전남CBS가 창립 15주년 기념공연 ‘홍지민과 함께하는 뮤지컬 & 오페라 스타’를 오는 2일 오후 7시30분 여수 예울마을 대극장에서 연다.

이번 공연에는 15회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홍지민(사진)이 출연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오페라 곡들을 선보인다.

홍지민은 이날 공연에서 가요 ‘사랑하기 때문에’와 ‘미스사이공’ 중 ‘라스트 나잇 오브 더 월드’, ‘지킬앤 하이드’ 중 ‘지금 이순간’, ‘플라이 미 투 더 문’, ‘경복궁 타령’ 등 다채로운 장르의 노래를 들려준다.

또 성악가 10명으로 구성된 앙상블 ‘메모리아’가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넘버들로 특색 있는 무대를 연출한다. 프랑스 국립음악원인 몽트뢰 음악원 출신의 피아니스트 엄주빈과 그가 이끄는 밴드의 연주도 이어진다. 문의 061-901-100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주혁 1주기 …지인·동료들 비공개 추모식

배우 김주혁(사진)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다.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지난 30일 고인의 지인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추모식을 열었다.

나무엑터스 측은 “소박하고 배려가 넘쳤던 고인의 생전 성향을 고려해 추모식 장소와 참석자 명단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식 나무엑터스 대표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서산 주혁이 산소에 다녀오는 길”이라는 글을 올리고 고인을 추모했다.

김 대표는 “추모식 인사 말씀을 올릴 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이 자리에 모여 유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주혁이는 자기를 위해 모여주고 그리워해 주고 추모해주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2018년 1주기…보고 싶다. 내 동생 김주혁”이라고 덧붙였다.

저명한 배우 고 김무생 아들인 김주혁은 지난해 30일 교통사고로 45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다.

김주혁은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2008), ‘방자전’(2010), ‘비밀은 없다’(2016), ‘공조’(2017) 등에서 폭넓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다.

2013년에는 예능프로그램 KBS 2TV ‘해피선데이-1박 2일’에 합류해 2년간 ‘구탱이 형’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화 ‘흥부’ ‘독전’이 차례로 공개돼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 최근 개봉한 ‘창궐’의 엔딩 크레디트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문지방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5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10 좋은아침
10	00 중계방송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4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0 기분 좋은 날	00 중계방송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 45 SBS 뉴스
11	45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오늘의 탐정(재)	4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끝까지 사랑(재)	00 12 MBC 뉴스 25 헬로키즈 동물교실 50 UHD 맨도롱 또똣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BBB삼총사의 모험 55 숨바꼭질(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뛰뛰빵빵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 V 15 보토스 패밀리 30 주간연예수첩	15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빅픽처 패밀리(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속보이는TV 인사이드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 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숨터	00 오피스 격전기 〈죽어도 좋아〉 전쟁의 서막	00 내 뒤에 테리우스	00 흉부외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제동	10 해피투게더 1~2부	10 대장금이 보고있다 1~2부	10 SBS 슈퍼콘서트 in 수원 1~2부
12	0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5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스포츠 다이어리 40 문화사색	4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보고 싶은 얼굴〉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꼬마버스 타요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미니특공대 X
08:45 랄랄라 뿌우
09:00 두다다쿵
09:30 원더볼즈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무 새우조림과 대패삼겹살 더덕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00 독도채널e
13:10 장수의 비밀
13:40 다큐 시선
14:30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4:45 로보카 폴리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15:15 출동! 파자마 삼총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30 랄랄라 뿌우(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쿵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5
19:00 레이디버그
19:30 EBS 뉴스
19:5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20:40 세계테마기행 〈볼수록 짜릿한! 북대서양 빙하 섬 4부〉
21:30 한국기행 〈노포기행 4부 동로면 마지막 이발사〉
21:50 다큐 시선 〈군대도 예외가 있나요?〉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생이별 시부모, 밤새는 부부〉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25:10 과학 다큐 - 비욘드(Beyon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일(음 9월 24일 丁酉)

子 36년생 핵심을 바로 보자. 48년생 현상의 이면까지 살펴보아야만 낭패를 방지할 수 있다. 60년생 마음만으로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72년생 필수적인 것이 빠져 있어서 당황하겠다. 84년생 본격적인 궤도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행운의 숫자 : 19, 98

丑 37년생 내색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더 낫다. 49년생 끝까지 가보는 것도 괜찮다. 61년생 원하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현태이다. 73년생 파문을 일으키는 이가 분명히 있다. 85년생 표리가 일치하니 참됨이 상서로움을 부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0, 03

寅 38년생 이변을 자초하는 동세가 돼버릴까 두렵다. 50년생 잘못 되어가고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니라. 62년생 여의치 않다면 기다리는 것이 무난하다. 74년생 제대로 값어치를 하게 될 것이다. 86년생 변화의 폭이 크다. 행운의 숫자 : 32, 66

卯 39년생 전반적이며 혁신적으로 개편되는 마당이로다. 51년생 횃대에 동저고리 넘어가듯이 걸리는데 없이 가볍게 처리 될 것이다. 63년생 곳마다 상서로움이 있다. 75년생 격식과 소득이 없느니라. 87년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공허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5, 23

辰 40년생 착수만 한다면 순조롭게 진행 되리라. 52년생 막상 임하면 마른 나무 꺾듯 할 것이다. 64년생 기본적인 것이 누락되어 애를 먹겠다. 76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이롭다. 88년생 걱정은 심신만 쇠잔케 할 뿐이니라. 행운의 숫자 : 73, 82

巳 41년생 여유로움이 완벽함을 담보할 수 있다. 53년생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에는 편안하리라. 65년생 실속은 없고 명분이나 구실만이 난무하고 있다. 77년생 확실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 89년생 참신해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86, 48

午 42년생 든든했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운세이다. 54년생 중요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만 실수하지 않는다. 66년생 손실이 따르지만 보이지 않는 효과도 동반하리라. 78년생 안정세로 접어들겠다. 90년생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쓰게 마련이다. 행운의 숫자 : 80, 70

未 43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처했을 때 결과가 더 낫다. 55년생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편차가 커지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리라. 79년생 숨어 있던 맹점이 노출 되겠다. 91년생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니 조심성 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5, 37

申 44년생 전체적인 국면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풀리리라. 56년생 가까운 이들의 평을 되새겨 보면 유익할 것이다. 68년생 확실히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다. 80년생 길운이니 행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겠다. 92년생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2, 38

酉 45년생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무방하다. 57년생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69년생 예견된다면 당연히 피하고 봐야 한다. 81년생 주변의 체면 때문에 참아야만 하는 고통이 지대하다. 93년생 활용하다 보면 터득하는 바가 많겠다. 행운의 숫자 : 08, 60

戌 34년생 발군의 기량을 발휘할 결정적인 시기이다. 46년생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성숙해지리라. 58년생 태평스런 항해가 될 것이다. 70년생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82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87, 92

亥 35년생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무의미 하다. 47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9년생 일관성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성취하느니라. 71년생 절실하지 않다면 내버려 둬라. 83년생 태산 같은 마음가짐으로 정중동하는 성숙함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69, 4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